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군살 빼기’... 정원·복리후생 ‘손질’

공공기관 정원 약 2700명 감축
올해까지 예산 5500억 규모 절감
비핵심 부동산 등 자산 효율화 추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정원이 약 2700명 정도 감축된다.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 107건이 개선되고 내년까지 2년간 예산도 5500억원 규모를 줄인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과 오영균 수원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해까지 2년간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약 5500억원 규모 예산을 감축한다. 과도한 복리비 및 복리후생제도도 107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6년간 비핵심 부동산과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 규

모 등 준비를 추진해 약 2조4000억원 규모 자산 효율화도 추진한다.

41개 공공기관 정원은 총 4120명 감축한다. 유형별로 비핵심업무 축소 등 기능 조정(1430명),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 효율화(1730명), 정·현원차 축소(960명)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대신 국정과제 수행 등에 1420명을 재배치해 실제 정원 감축 규모는 약 2700명 규모다.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올 한 해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해에는 공공기관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에 역점을 기울였다면, 금년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혁신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공공기관들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들이 혁신계획을 속도감있게 이행하도록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 매 2개월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과 보완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혁신계획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논의 등을 거쳐 연말 5대 분야 혁신계획을 확정할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올 농가소득 전년비 2.2% 증가한 4802만원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3’
농식품 수출, 연 100억弗 돌파 전망

올해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4802만원으로 전망됐다. 농식품 수출은 연간 1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6회 농업전망 2023 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조6310억원,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원으로 추정됐는데, 올해는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이 감소함에도 자재 구입비 지원 등에 따라 농업경영비가 감소하고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223만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농외소득은 농업노임 하락으로 소폭

(2.3%) 감소하나,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와 펜데믹 영향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1.3%,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95억8000만달러로 전망됐다. 엔저 완화와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물류 운임 정상화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는데다, ‘K-푸드 수출 확대 추진 본부’가 출범하는 등 정부의 수출 확대가 수출에 기여하며 1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수확한 쌀의 공급이 끊겨 쌀값이 오르는 시기인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시장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수확기(10~12월) 대비 9% 높은 20kg에 5만1000원 내외로 예상했다.

정부의 적정 면적 정책(69만ha)이 달성될 경우, 수확기 쌀값은 정책 미고려 시 대비 5% 상승할 전망이다.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해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고, 돼지 도축 마릿수는 감소하나 재고 포함 공급량 증가로 돼지 도매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계란과 생닭, 오리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닭고기와 오리 생산량도 감소해 생계유통가격과 오리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오를 전망이다.

원유 생산량은 적소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원유 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공유 생산차액 지원, 저지중 도입 및 개량 강화,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한다.

배, 감귤, 복숭아, 단감, 포도, 사과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하고, 생산량도 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콘진원-UAE 콘텐츠산업기관 양해각서 체결식 현장사진 '한-UAE 콘텐츠산업 진흥 협력 체계 구축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콘진원

콘진원 UAE 공공기관과 K-콘텐츠 확산 협력

콘텐츠산업 진흥기관 2곳과 MOU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UAE 콘텐츠산업 진흥 협력 체계 구축 확대를 위해 UAE 콘텐츠산업 진흥기관 두 곳과 지난 16일과 17일 UAE 두바이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콘진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관은 ▲두바이경제관광부 소속 ‘두바이 행사진흥청(이하 DFRE)’ ▲중동지역 최대 콘텐츠마켓인 두바이인터내셔널 콘텐츠마켓의 주회사 ‘인덱스홀딩’으로 두 곳이다.

체결식은 윤석열 대통령 UAE 국민 방문 기간에 맞춰 진행됐으며, 조현래 콘진원 원장과 DFRE 아흐메드 알 카자(Ahmed Al-Khaja)대표, 인덱스홀딩 압둘 살람 알 마다니 회장 및 아나스 알 마다니 부회장이 참석했다.

◆중동 콘텐츠 핵심 기관·기업과 협약

DFRE는 두바이의 유통 및 축제 부문을 진흥하며 두바이가 연중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한 인덱스홀딩은 전시 컨벤션, 무역 및 투자,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최대 콘텐츠마켓인 두바이인터내셔널콘텐츠마켓을 주최하는 등 중동지역 콘텐츠산업 협력을 위한 핵심 기업

으로 손꼽힌다.

이번 체결을 통해 콘진원과 DFRE, 인덱스홀딩은 ▲양국의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 ▲공동 프로젝트 진행 ▲정기적인 사업 및 공동 관심사 검토를 통한 정보교환 촉진에 힘을 모은다. 또한 ▲두바이인터내셔널 콘텐츠마켓 ▲KITE : K-POP in the Emiretes 콘서트 ▲K-콘텐츠 엑스포 등 양국의 콘텐츠 행사 개최에 협력하는 등 콘텐츠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류 확산 기회 확대

이번 양해각서는 콘텐츠 분야 핵심 국정과제(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이행 기반 마련으로, 해외 진출 전략 다변화를 통한 K-콘텐츠 해외시장 판로개척, 양국 간 콘텐츠산업 교류협력을 통한 한류 확산과 연관산업 수출 견인에 이바지하고자 진행됐다.

최근 중동 콘텐츠시장은 높은 젊은 인구율과 강한 소비력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UAE는 드라마, 음악,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K-콘텐츠 인기가 높아, 향후 아랍 중동권 한류 확산의 핵심 거점이자 신진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빛나 기자 vitna@

동서발전, RE100 전문가들과 머리 맞대

제4회 탄소중립 미래전략포럼 개최

한국동서발전이 울산 중구 본사에서 RE100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들과 ‘제4회 탄소중립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전략포럼은 ‘RE100 이행을 위한 상생 사업모델 개발’을 주제로 기업의 RE100 달성을 목표로 동서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전영환 흥익대 교수,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ESG 임팩트(Impact)팀장 등 관계자가 참

석했다.

전영환 흥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와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ESG Impact팀장은 포럼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시장과 송전망’과 ‘기후변화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변화 및 RE100 이행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전영환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과거와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RE100 확산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고도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용 팀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2030년 RE100 달성, 2050년 배터리 전 밸류체인 탄소중립 달성 등 로드맵을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협력사의 RE100 전환지원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재생에너지가 우리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추진, RE100 이행모델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에너지분야 기업·전문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탈탄소 에너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교통사고 내고 횡설수설...‘마약 투약’ 40대 기자 긴급체포
▲검찰 ‘10·29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5명 구속기소 /사진 뉴시스

▲검찰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돈세탁’ 추가 기소
▲전장연, 서울시 면담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내일 시위 재개



▲양대노총, ‘국보법 위반’ 국정원 압수수색에...“공안통치 부활”
▲정부, 안전운임제 ‘강제력’ 없앤 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사진 뉴시스